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기도문

2021년 4월 25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기도문 묵상하며 말씀 나누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매 주일 드리는 기도, 그리고 모두다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줄 한 줄, 2월 21일 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일곱번에 걸쳐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한 목사님이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유리에, 메모를 적어놓았습니다.

“동네를 10번 돌았는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못하면, 심방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메모 끝에, 주기도문 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메모와 함께. 그 메모에는, “10년을 넘게 동네를 돌면서 일하였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주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메모 끝에, 주기도문 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는, 두개가 따로 다른 기도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며는 악,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삶을 살게 되니까, 같은 내용의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0 장 13 절에서,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인간인지라, 유혹에 빠지고, 선을 행하기는 커녕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영어로, Lead us not to temptation. 한국말로 바꾸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리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문 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현재까지 저는 남 험담도 하지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남을 못살게 굴지도 않았고, 시기도 하지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조금있으면, 침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7 대 죄악, 7 대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 개념의 창시자는 6 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오 1 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과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들이 경험하는 죄악을 간추린 것입니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칠죄종, 7 가지 근원적인 죄 라고 하지요. 七罪宗? 種? 씨 종.. 이 악습들을 죄의 씨..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7 대 악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식탐, 나태

교만은 자기 자랑만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남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인간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입니다. Greed 영어로 나와 있는데, 재물 욕심 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남에게 인색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이웃과 나누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시기 – 십계명에서도, 남의 재물과 배우자에 대하여 시기하고 탐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기하고 탐을 내어서, 남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분노가 그 다음입니다. 분노가 폭행, 살인, 전쟁 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노가 폭발하거나 그 분노가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면 죄입니다.

음욕이 그 다음입니다. 인간이 가진 성적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자기 절제 없이 성적 쾌락에 도취되는 것을 뜻하며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폭력, 간음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음식과 재물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양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도를 지나친 상태입니다.

나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해야하는 데 하지 못하는 것도 나태의 일종입니다.

이 일곱가지 죄악.. 일곱가지 유혹이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갇혀 살다보니까, 외식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고, 또 열어도, 감염 될까봐,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부터, 아침 식사하는 중에, 제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나?”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떡볶기? 오삼오 떡볶기? 오징어 삼겹살 오뎅 떡볶기? 제육볶음, 갈비? 냉면?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해서,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먹지 못하여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식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교만 대신 겸손, 인색함 대신 자선, 질투대신 친절하고, 분노대신 인내하고, 음욕 대신 순결하고, 식탐 대신 절제함이 있고, 나태대신 근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1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 일 주야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세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첫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입니다. 셋째로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세번 유혹 받으신 주님께서서는 세번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 주 하나님 만을 경배하며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주님께서서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유혹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라는 유혹입니다.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하여라. 원하대로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 터이니, 맘대로 해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곧 하나님이 필요없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리는 유혹입니다. 첫번째 계명, 너 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가운데 계획이 있으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나의 삶의 주관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뜻대로, 계획한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 16:21-23) 베드로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붙들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 그가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서였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선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돌이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다(23 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사탄에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하신 대로 었습니다.

헌팅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20년 전 일입니다.

타민족 영어 회중인 헌팅턴 연합 감리교회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 가상으로, 목회 막 시작하는 첫해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등록금을, 교회 비서가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만불이 넘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경험없는 담임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깜깜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대로 잠 못자고, 부시시, 아침에 교회 목회실에 갔습니다. 목회실이 본당 앞 쪽 구석에 있어서, 본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문제 많은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소연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 앞쪽에 크게 걸려 있는 십자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움직이면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꼭, 주님께서 양 손을 벌리면서 제가 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건삼아, 너 왜 그러니? 이게 네 교회니? 내 교회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교회,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1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끝 부분이 아닌 것이라고, 마크 트로토 목사님이 주장합니다. 끝 부분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 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실 이 세개가, 사탄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나라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능과 온갖 인기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이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만 속함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가 새 목사를 맞이합니다. 저는 새 교회로 가서, 목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왜? 왜 지금? 왜 거리로?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괜찮은데.. 여기 웨어필드에게 은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우님들과 참 좋은 환경에서,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제가 감독이었다면 저를 그냥 가만히 놔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나이도 60 대, 많이 들었으니, 3-4 년 더 하고,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은퇴하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입니까? 왜,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서 만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최 영 목사님께서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에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목회 30 년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가정을 만나고, 많은 장례식도 인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 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 하시네. 이제 하루 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 하시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아멘. 아멘.